

피치항공, 오는 22일부터 일본 국내선 전편 운항 재개

- 일본 국내선 1일 22개 노선 약 100편 운항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피치항공 대표이사 CEO: 모리 타케아키)는 7월 22일부터 일본 국내선 전편 운항을 재개했다. 1일당 운항 편수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감편되었던 22개의 노선 약 100편이 다시 증편된다.



피치항공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일부 노선의 감편 및 운휴하였다.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재개하였고, 6월 19일부터는 일부 노선의 감편을 지속하면서 일본 국내선 22개 전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 약 1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일본 국내선 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피치항공은 전 직원의 마스크, 장갑, 페이스실드 착용과 기내 소독 실시 등 공항 및 기내에서 철저한 감염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3분 만에 교체되는 기내 환기 시스템에 관한 동영상 제작하여 Peach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탑승 전 자택에서의 온도측정', '공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을 피치항공의 탑승 승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목적지에서 감염 예방 대책 또한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 대책과 운항의 양립을 도모하고 있다.

(감염 대책 안내-일본어): https://www.flypeach.com/information/jp/infection_control/

(기내 환기 시스템 안내-일본어): <https://www.flypeach.com/information/jp/air-circulation/>

Peach에 대해서(www.flypeach.com)

피치항공은 2012년 3월에 오사카(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하였다. 현재, 간사이 공항과 더불어 신치토세 공항, 센다이 공항, 나하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하여, 항공기 32대로 일본 국내선 22개 노선과 국제선 17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 바닐라항공과 통합하여, 아시아의 리딩 LCC를 목표로 하고 수도권 및 간사이를 중심으로 각지로부터의 노선망을 확대하고 있다.